제11호 / ´14.8.26(화)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9,614원 인상!
통상임금 현실화!
임금체계 개악 저지!
자녀돌봄휴가 쟁취!

▣발행처:선전부 ▣발행인:조민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임금교섭 위임, 지회에서 더 빡세게!



지난 주부터 3차례 집중교섭

결렬 이후에 한달이 넘도록 소식없던 지부교섭이 8월 19일, 21일, 25일 집중적인 교섭을 통해 대략적인 의견일치를 보았다. 여름휴가를 훌쩍 넘기고 추석까지 다가오는 상황을 고려해서 지부는 타결의지를 강하게 보였고, 25일 13차 교섭에서 최저단일액 25,000원을 비롯해 대략적인 의견일치를 도출했다.

임금교섭 지회로 위임

지부는 최저단일액을 25,000원에 의견일치를 보고 임금교섭을 지회로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요구안에 통상임금 확대요구안이 포함된 관계로 각 지회별로 기본급 인상안과 통상임금 확대안을 동시에 교섭하는 경우가 많다. 각 사업장 사측 교섭위원들은 통상임금 확대를 이유로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작년 2만원으로 결정되었던 최저단일액이 올해 좀 더 많이 오르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지회별로 더 강력한 투쟁으로 임금교섭을 끌어야한다.

한편, 통상임금은 중앙교섭 결과를 확인하고 논의키로 했다. 중앙교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지부교섭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 개편은 조합과 합의 후 개편하고 취업규칙 등 제 규정은 단협에 맞게 개정하도록 했다. 자녀돌봄휴가는 감염병에 걸린 자녀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지회투쟁 본격적으로

이제 임금교섭이 지회로 위임됐다. 각 지회는 임금교섭 개시와 함께 투쟁도 본격적으로 벌인다. 그동안 통상임금 핑계로 기본급을 최소한으로 인상하려고 한 사용자들의 입장이 변할리 없다. 지회의 투쟁이 진짜 중요한 시기가 왔다. 금속노조의 1, 2차 총파업 투쟁이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을 진전시켜왔다면 이제 지회의 단결된 투쟁이 임금교섭을 비롯해 올해 임단투의 마무리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제 진짜 막바지다.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자!

13차 교섭 속기록

최저단일액 25,000원 의견일치

사 : 오늘 안을 준비했다. 안에 대한 조합 측 의견 듣고 진행했으면 한다.

노 : 오늘 지회 중에 피엘에이가 구조조정 문제로 농성에 돌입해서 교섭에 늦었다. 올해 사실 큰 사업장 두 곳이 의견접근을 봤는데, 큰 내홍을 겪고있다.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용자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한다. 안을 준비하셨다니 먼저 보고 판단하겠다.

[정회]

- 사측 최저단일액 22,000원 제시

노 : 실무교섭 결과 들었다. 나머지 문제는 실무에서 얘기됐다시피 여지가 좀 있다. 그러나 최저단일액 관련해서 사용자 입장을 들었다. 작년 최저단일액이 2만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부담이 있다고 들었다. 2만원이면 하루 1천원꼴도 안된다. 작년은 피엘에이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만, 사실 최소한의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이지,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 부분은 사용자단체에서도 결단을 해주시면 얼른 정리하고 지회로 임금논의를 내리고 이번 주 중에 전반적으로 지회까지 타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쉽다.

사 : 작년 피엘에이를 말하셨지만 올해도 새로 편입된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전년도 2만원에서 10% 인상하여 2만 2천원을 제안한 것이다. 3만원까지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대충지부 회사들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본다. 그러나 각 회사 입장을 무시하고 안을 제출할 순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저희가 정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임금인상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되는게 아니고 각 지회별로 결정되면 이것 보단 훨씬 상회할 것이다. 그런 것도 감안해달라.

노 : 몇천원씩 찔끔찔끔 하지 말자.

사 : 저희 생각에는 작년 2만원에서 10% 인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3만원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간 정도에서 정해지는 게 맞지 않나 한다. 정회하면 저희가 조율해서 안을 제출하는게 어떨까?

[정회]

- 사측 최저단일액 25,000원 제시

노 : 실무결과는 보고 받았다. 다다음주면 벌써 추석이기 때문에 사업장 교섭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2번 제시안에서 '중앙교섭 결과에 따른다'는 삭제하자. 기본급 25,000원 제시하셨는데, 오늘은 여기서 의견일치 보고 지회별로 열심히 교섭하셔야겠다.

사 : 대화를 하니 접점에 이르는 것 같다. 사용자측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 지부에서 오늘 지회로 임금을 위임해주셨으니 오늘부터 사용자들이 만족할만한 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

노 : 목요일까지 중앙교섭이 정리될지 모르겠다. 목요일에 교섭을 어떻게 할까?

사 : 중앙교섭에서 마무리되는 것 보고 실무에서 정하자. 지부에서 연락주시면 날짜와 시간을 정하겠다.

노 : 목요일 15시 정도에 진행하자.